

## 發明者의 特許觀

—리버페이와 갈릴레오의 경우—

成文法的인 律法精神에 의해 세계에서 最初로 特許法을 制定한 나라는 이탈리아 속으로 사라진 베네치아共和國이며 이미 340餘年前인 1474年の 일이라는 說이다.

이같은 法制를 뒷받침하는 根據로는 이탈리아인이며 望遠鏡을 實用化시킨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베네치아에서 特許權을 取得하였다는 事實이 이를 立證하는 듯하다.

世紀的인 科學者 갈릴레오가 베네치아에서 얻은 특허권은 揚水裝置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1624년에 英國에서 施行한 專賣條例보다도 베네치아의 특허법은 無慮 150年이나 앞선다.

갈릴레오가 취득하게된 특허권의 出願動機는 名譽的인 것과 發明에 대한 代價追求의 兩面性이 있었음은 거의 틀림 없을 것이다.

그러나 1608년에 네덜란드의 리버제이가 발명하였다는 망원경이 갈릴레오가 實用化함으로써 木星의 4衛星을 發見한 코페르니쿠스의 地動說을 有力하게 實證한 偉大한 發明에 대하여 특허권의 是非가 있었다는 얘기는 없다.

갈릴레오가 실용화한 망원경은 렌즈와 렌즈를 結合한 光學技術의 精粹이며 갈릴레오가 리버제이의 발명을 引用한 것도 旅行者로부터 우연히 들은 얘기를 援用하여 獨自的으로 망원경을 製作한데서 紛爭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可能性은 그러한 理由보다는 距離나 通信이 不便한 것과 利潤追求의 觀念이 명예에 뒤지기 때문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現世에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설사 리버제이가 自己의 發明이 活用되어 天文學上 新發見이 됨으로써 社會에 貢獻한다는 矜持만으로 滿足할수 있었겠느냐 하는 點이

다. 그러나 뒤달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分明이 리버제이나 갈릴레오는 牧歌的 個性의 所有者이며 그 當時에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다는 그것 만은 感知할 수가 있다.

특히 리버제이가 망원경을 발명한 時代는 베네치아共和國에 特許制度를 實施한 뒤의 世代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특허권의 許與는 發明을 勸獎하기 위한 國家的手段으로 始發했으나 近代社會에서는 특허는 利益追求型의 個人이나 企業이 自己나 自社에의 더 많은 利潤稼得을 위한 防衛手段으로도 利用되고 있다.

따라서 이윤이 豫測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特許紛爭이 있을수가 없다. 혹 感情의 對立으로 분쟁이 激化될수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一時的인 現象이다.

『발명은 이윤에의 길과 直結된다』는 先覺者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요즘의 기업은 發明을 經營의 死活戰略으로 삼고 있음을 누구도 否認할수가 없다. 이를 가리켜 特許競爭이라고 하는 것이다.

리버제이나 갈릴레오의 思考를 正確히는 把握할수가 없지만 요즘의 특허에 대한 認識觀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보아서 틀림이 없다.

時代가 發展하고 經濟가 國際化하는 現今은 물론이고, 더우기 앞날에는 特許取得戰列에서 앞지르는 기업만이 存在하리라는 豫見은 이미 普遍化되어 있다.

貧富國이 政治協商을 어떻게 展開하든 간에 힘의 背景이 國力일진대 그 國력을 뒷받침하는 新技術 즉 權利가 賦與된 特許만이 唯一한 國力誇示의 手段이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